

대한민국 특화 영화제 자리매김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결산… 관객 3만5000여명 경제적 파급 효과 179억4000여만원

무주산골영화제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재)무주산골문화재단 측은 △영화제 기간 축소(5일→3~4일) 검토의 필요성과 △국제영화제로의 확장 방식 구상, △무주군민과 함께 하는 일상화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의 계획을 밝히며 영화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 의지를 밝혔다.

계획은 자연 힐링 영화제로서 그간, 무주산골영화제가 쌓아온 인식을 확고히 하고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결과를 분석·반영했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총 3만 5천 명(경제적 파급효과 179억 4천여만원)을 불러 모았던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 실내외 7개 상영관에서 21개국 96편의 영화를 상영했으며

관객들로부터 영화프로그램(만족도 86%)과 부대 이벤트(만족도 86%), 유료화, 홍보·마케팅, 안전 패키지 등 행사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실제 영화제 기간 중 실시했던 관객 만족도 설문조사(2024. 6. ~8. 무주 예체문화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객 618명 대상)에 따르면 관객의 81%가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여성, 주요 연령층은 20(33%)대 ~30(48%)대, 2인 동반 57%, 3인 이상 동반 33%, 1인 방문객 10%였으며 서울·경기권에서 온 방문객이 50%에 달했다.

다음은 전북 10%, 대전 7% 순이었으며 처음 방문한 관객은 60%, 2회 이상 관객은 40%로 나타났다.

1박 이상 체류 관객도 80%에 달했으며 66%가 차차이용 관객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의 86%가 무주를, 92%가 무주산골영화제를 재방문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시설 부족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티켓 구매 시스템 불편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장)는 “산골영화제는 앞으로도 지역별시 무주와 개최·기능한 대체불가 영화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갈 것”이라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차별화, 도약방안을 모색해 이로 인한 지역경쟁력 또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시작점이 바로 13회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초여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특화 영화제로서 시대와 트렌드, 관객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재방문 관객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 숙박 및 교통수단의 개선 등에도 주력해 나갈 뜻을 확고히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기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수료식 개최

작년 10월 선발된 29명 중 27명 청년 인재 배출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강의 실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농군사관학교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수, 군의회의장,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1기 교육생들의 수료를 함께 축하했으며 우수 수료자 시상 및 우수사업계획서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농군사관학교는 장수군에 거주하며 스마트팜 협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 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9개월간 운영됐으며 작년 10월에 선발된 29명 중 27명이 수료했다. 이중 우수 3팀은 장수군의 미래농업 표장을 수여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비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9개월간 성실히 이수한 교육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폭염 대비 사과 현장기술지도 강화

장수군은 최근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사과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추석사과 흥로의 작과량과 과실 비율 등 생육이 순조롭고 전년 대비 탄저병 발생 또한 감소해 평년수준의 수확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상예보에 따르면 집중호우 뒤 고온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과실 햇빛 데임(일소) 피해가 우려되어 사전·사후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일소피해는 높은 온도나 광선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지배치와 관수 또는 탄산칼슘, 생식회를 살포해주면 좋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경우 서쪽과 남쪽의 직사광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받은 과실은 표면이 괴사해 상품성을 잃고 탄저병 등 병해가 전염되므로 빨리 솟이줘 다른 과실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 요금을 무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 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곳으로 무주군에는 ‘금호 축산식당’ 등 일반식당 27곳과 ‘무주 반딧불북카페’, ‘설인관광펜션’ 등 4곳이 등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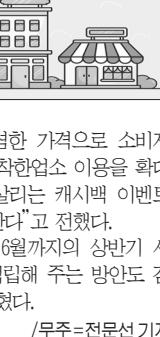
업소 명단은 고향사랑페이 앱 실행 후 팝업 창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누리집(분야별 정보·산업 경제·소상공인지원)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영광 팀장은 “휴가철이 시작되고 캐시백 이벤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용 문의가 쇄도하

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웃게 만들고 착한가격소 이용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캐시백 이벤트에 많은 동참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사용 실적도 5% 적립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2024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지역 내 위기 상황 및 국지도발 발생을 가정해 민·관·군·경·소방의 위기관리와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연습을 통해 유사 시 지역안전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본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는 2024년 진안군 을지연습 추진상황 보고와 7733부대 대대 정작과의 8월 UFS 연습, 9월 화랑훈련 보고 후 위원간 통합방위 발전방향 토의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토의시간에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된 상황에 참석한 모든 통합방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전춘성 의장(진안군수)은 “2024년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각 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림 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산악초티문 흥삼실에서 산림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임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임업인과 유관기관 등 24명으로 구성한 정책자문단은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통해 미래 진안의 산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립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제34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다양한 산림정책 발굴을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만큼 지문위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쓴소리를 가감 없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